

‘도독 책읽기’가 이끈 나의 인생

감각적인 소설 읽기에서 무감각적인 과학사 읽기로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 과학사

돌이켜 보자면, 내가 공부의 길에 들어선 것은 ‘도독 책읽기’에서 시작된 셈이다. 내게는 누님들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 국민학교 졸업으로 끝났고, 그나마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쯤 누님들은 모두 시집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유식한 감독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무학이었는데, 그런대로 아버지께서는 어찌 깨쳤던지 한글을 떠들떠들 읽고 쓰실 수가 있는 정도였지만, 어머니는 그렇지도 못했다. 그러니 누구도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책벌레 인생으로 이끈 ‘남독’

나의 ‘도독 책읽기’는 그래서 국민학교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다. 아무 책이라도 들고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내가 공부하는 줄로 아셨고, 자연히 나는 소설이나 잡지를 뒤적이면서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기특한 아들 노릇을 해낼 수가 있었다. 실제로 나는 공주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라면 빼어나게 잘한 셈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독질이 크게 문제될 까닭도 없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런 지독한 남독(濫讀)이 결국은 나의 지적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여 책벌레 인생으로 이끌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공부에 필요하며 책값을 얻어내서 주로 사다 읽은 것은 《학원》, 《항학》을 비롯한 잡지들과 몇 가지 단행본이었다. 물론 넘겨지 못한 살림 형편을 잘 아는 내가 대단한 돈을 가져다가 책값으로 쓰지는 않았다.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책을 읽었던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나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미 이광수에서 방인근과 김래성 등의 소설을 거의 모두 읽을 정도가 되었다. 아마 헌책방에서 빌려다 보기도 했던 것 같지만, 주로 친구들 책을 빌려다 읽었던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지금 내 지식들에게는 결코 권장하고 싶지 않은 ‘조속한’ 독서경향이라 할 것이다. 하기는 내 지식들은 이미 다 자라버렸으니 앞으로 손자들에게나 그렇게 권해 볼까? 그런데 나의 독서 습관은 그 다음이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버릇이 20대 후반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는 곧장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를 6년 이상 계속했는데, 이 기간에도 여전히 소설이나 읽는 독서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읽은 소설이란 대개 순간적 심심풀이를 위한 오락으로서의 작품이 중심이었다. 그런대로 무게 있는 소설도 읽어 보려고 가끔은 시도했지만 대개 실패하고 말았다. 대개 너무 재미가 없는데다가 번역소설의 경우 무슨 말인지조차 알 수 없게 엉터리로 번역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대학 때부터 신문기자 시절까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읽은 소설이 주로 영어소설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이다. 영어를 익히기 겸해서 나는 펄 벅에서 존 스타인벡, 서머셋 모뎀 등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의 자극성이나 흥미보다는 영어 익히기가 중심이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웬만하면 사전을 찾지 않고 마구 읽는 것이 내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영어 소설을 열심히 읽는 것이 영어 공부에는 가장 좋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물론 나는 1967년 초 미국 유학을 떠난 다음부터는 일절 소설을 읽지 않았다. 영어소설을 안 읽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말 소설도 거의 읽지 않았다.

‘사똥’을 아십니까

그렇게 감각적 세계에서만 독서를 거듭하던 내가 어쩌다가 과학사라는 전혀 무감각적이랄 수밖에 없는 학문에 말려들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계기가 있다면 신문사에서 과학 기사를 주로 담당하면서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의 필요성에 눈뜨기 시작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역사적 관점에서 과학에 접근하는 일에 주목하게 되었다. 천천히 나는 과학사라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내가 과학사에 결정적으로 방향을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잡기 시작한 것은 ‘폴브라이트 유학시험’에 2년 연속 낙방하면서부터다. 1964년 전후의 일인데, 나는 폴브라이트 한국위원회에서 모집하는 미국유학 장학생 모집에 연속 2년 떨어진 일이 있다. 두 번 모두 1차에 합격했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특히 두번째 해에는 전년의 1차 합격자는 나 혼자 뿐이어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에도 나는 2차에 보기 좋게 낙방해 버렸다. 이유를 알아 보았더니, 그 위원회의 미국인 책임자가 미국에서 과학사 같은 것은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면접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가능하면 미국에서 과학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의 솔직한 심경 고백이 악용되어(?) 공짜 유학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오기가 발동하여 이미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친구에게 미국에서 과학사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조사를 부탁했고, 그 결과 미국과학사학회 간사를 맡고 있던 캔사스대 교수 존 그린(John Greene)과 편지를 나누게 되었다. 나의 첫 미국인 은사라 할 수 있는 그린 교수는 《아담의 죽음》 등 다윈 연구서를 몇 권 쓴 유명한

미국 과학사학자로, 뒤에는 학회 회장으로 지냈다. 그의 주선으로 나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한국의 물리학과 출신으로 미국 대학원의 사학과에 유학한다는 일은 조금 특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의 한국 청년이 미국 대학에 과학사를 공부하러 갔는데 둘은 그 사실을 서로 모르고 있었다. 그가 송상용 교수(한림대)였는데, 우리는 미국의 바로 이웃지역인 캔사스와 인디애나에서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과학사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이다. 송교수와 나는 한국에서 과학사 첫 유학생이 됐다.

미국에 유학하고서야 나는 수수께끼 같은 ‘사똥’을 알게 되었다. 언젠쯤의 일인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과학사에 관심 있다는 말을 들은 민선생(이름이 생각나지 않는)이 ‘사똥’이 어쩌구하는 말을 하다가 내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사똥도 모르느냐?”고 일갈했던 것이다. 나보다 아마 15년 이상 연장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민선생은 엔지니어였는데, 과학사학자 조지 사턴(George Sarton, 1884 - 1956)을 ‘사똥’이라고 발음했다.

감각적 세계에서만 독서를 거듭하던 내가 어쩌다가 과학사라는 전혀 무감각적이랄 수밖에 없는 학문에 말려들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신문사에서 과학기사를 쓰며 과학을 대중에 전달하는 일의 필요성에 눈떴고, 그 방법으로 천천히 '과학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조지 사튼은 벨기에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해 하버드대에 과학사학과를 만들고 과학사학자를 기른 '미국 과학사의 아버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의 대중적 저서 《과학사와 새로운 휴머니즘》은 60년대쯤인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온 일이다. 《과학혁명의 구조》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가를 올리고 있는 토마스 쿤 역시 그의 제자이다.

사튼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고, 미국에서는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당연히 그는 여러가지 책도 썼다. 하지만 그의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앞에 말한 《과학사와 새로운 휴머니즘》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일본 것의 중역으로 보인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것 말고도 더 본격적인 과학사 연구서인 《고대중세과학문화사》가 5권까지 옮겨져 있다. 《과학사와 새로운 휴머니즘》이나마 오래 전에 절판된 한국 상황에서는 과학사에 관심 있다는 한국 지식인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일은 없을지 모르겠다. "사똥도 모르세요?"

대중과 함께 하는 학문

환갑을 눈앞에 두고 이제 돌이켜 보면, 나는 30살 쯤까지는 소설 이외의 책은 거의 읽은 일이 없고, 30살 이후에는 과학·과학사, 그리고 역사책 이외에는 거의 읽은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 직업으로서의

책 읽기를 그만두고 옛날 젊었을 때처럼 소설 좀 실컷 읽을 수는 없는 걸까?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떠오르는 얼굴과 소설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같이 외대에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오발탄>의 소설가 이범선(李範宣) 선생은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낸 소설집 《흰 까마귀의 노래》를 내게 보내주신 일이 있다. 그리고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무숙(韓茂淑) 선생은 다산 정약용을 그린 소설 《만남》을 내게 보내신 일이 있다.

한무숙 선생이 그 소설을 보내 주신 뜻은 대개 짐작이 간다. 그 소설을 구상중이거나 집필중이었던 언젠가 우리는 서강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만난 일이 있다. 그때 나는 '마테오 리치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과학사에 남긴 마테오 리치의 발자취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들은 한무숙 선생이 한참 동안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다. 아마 그 기억이 남아서 내게 일부러 책을 보내 주신 것 같다.

한데 이렇게 이범선과 한무숙의 소설을 얻어 두고서도 나는 아직도 그 책들을 읽어 보지 못했다. 언젠가 이 두 권의 책만은 꼭 읽어 보겠다는 다짐을 한 지가 몇 년인데도 아직 나는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 아마 어쩌면 나는 이 책들을 잘 보관하면서 언젠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으려니 생각하는 것만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 도대체 대중을 떠난 학문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도 읽어 주지 않을 글을 끊임없이 쓰고 있는 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학문보다는 대중에 널리 직접 호소하는 노력이 결국 가장 값진 것은 아닐까? 새삼 대중문화에 눈이 돌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조수미의 노래나 마돈나의 에비타, 최명희와 이문열의 소설, 그리고 영화나 대중가요, 그리고 방송 드라마 등이 나의 학문보다 훨씬 값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

얼굴

대중 속에 과학 심은 '막후세력'

과학기술상 진흥상 수상한 송상용 교수

"학생시절부터 글쓰고 책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질에다 국내에 과학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학관련 글을 쓸 만한 사람이 드문 현실이 나를 중형무진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송상용 교수.

송상용(59, 한림대 사학과)교수가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과학기술처가 제정한 제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을 수상했다. "상을 받기에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면구스러움을 표하는 송교수보다 그의 수상소식에 반색을 한 것은 오히려 출판계. 많은 출판인들은 그의 수상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1천여편의 집필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수상 이유에서 알 수 있듯, 송교수는 과학출판의 '막후세력'으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과학문고의 효시로 손꼽히는 전과과학사의 '현대과학신서'를 비롯, 과학과인간사의 '과학과 인간' 총서, 과학기술진흥재단의 '학생과학문고' 등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중요하고 굵직한 과학 기획물들의 대부분이 그의 손을 땀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발간된 과학책 가운데 그의 기획과 자문을 거친 책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책의 선택이나 생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잡지 및 신문에 서평이나 특집 기획, 칼럼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과학책과 지식을 소개하는 한편, 77년 과학저술인협회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과학을 일반인의 관심 속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학생시절부터 글쓰고 책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질에다 국내 과학

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학 관련 글을 쓸 만한 사람이 드문 현실이 나를 중형무진하게 만든 것이지요."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사회학'. 과학과 인문학과의 만남이 생경하기만 하던 60년대 말 국내 대학에 이 분야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한 1세대 학자로 손꼽히는 송교수는 최근 들어 과학사 혹은 과학학 협동과정도 개설되고 전문학자들도 배출되고 있는 것이 기쁘고 고맙다.

"그동안은 내게로 쏟아지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느라 실질적인 내 공부는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후배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과학 출판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아지고 필자도 늘고 했으니 내 공부에 좀 매달려야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주요 관심사로 두고 살지만 송교수는 아직까지 컴맹에다 운전면허도 없다. 기계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으며 웃는 송교수는, 이런 기질이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장미빛 환상보다는 염려와 비판을, 그리고 그것의 철학적인 면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운동'을 싫어한다는 송교수가 3년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는 시민환경대학과 환경연수원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 박남정 기자